



고객이 감동하는 병원

성가[롤로병원] NEWS

제320호 | 월간

2025년 4월호

등록번호 순천 라 00007
발행인 박명우 편집인 홍보실
발행처 성가[롤로병원 순천시 순광로221
WWW.stcarollo.or.kr
대표전화 061-720-2000
Fax 061-720-6000
홍보팀 061-720-6477~8
인쇄 도서출판 범촌

성가[롤로] 비전 2030
신뢰와 감동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성가[롤로]병원

1. 치유자이신 예수성심의 사랑을 실천한다.
2. 책임진료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3.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한다.
4.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태살 5, 13)

핵심가치

- 1. 생명존중
- 2. 전인진료
- 3. 역량강화
- 4. 소통과 화합
- 5. 사랑과 섬김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여산마을에서 의료봉사 펼쳐

성가[롤로]병원 의료봉사단은 3월 15일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여산마을을 찾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의료봉사단원 22명(직원 20명, 봉사자 1명, 기사 1명)이 참여했으며, 김건평 의료봉사단장(비뇨기과), 김재혁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응급의학과), 주정현 과장(영상의학과)을 중심으로 진료가 진행되었다. 접수부터 혈압 및 혈당 측정, 진료, 투약, 수액 주사, 복부초음파 검사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70명의 주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 그중 16명에게는 복부초음파 검사를, 62명에게는 수액 주사를 제공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당초 섬 지역인 개도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기상 악화로 인해 승선이 불가능해지면서 여산마을로 장소를 변경하였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마을 이상의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 덕분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였다.

이번 의료봉사에도 다양한 물품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는데, 여수지역보장협의체는 현장에서 직접 만든 봉어빵과 어묵을 제공했으며, 여수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치약, 칫솔 세트를, 전남사회복지협의회에서 빵과 음료수를, 성가[롤로]자선회에서는 파스와 간식을 준비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성가[롤로]병원 의료봉사단은 지속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찾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사회복지팀 임소은 사회복지사



| 신임 진료과장 소개 |



약력 : 조선대학교 의학과 학사
조선대학교병원 수련
피부과 전문의
전문 분야 : 피부질환

피부과 신동식 과장



심장혈관흉부외과
송준영 과장

약력 : 중앙대학교 의학과 학사
전북대학교 의학과 석사 취득
중앙대병원 인턴 수련
건국대병원 레지던트 수련
전북대병원 레지던트 수련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임상강사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임상조교수
예수병원 과장
원광대학교병원 임상조교수

전문 분야 : 심장 및 흉부외상, 중환자의학,
체외순환보조술(ECMO)

이안요양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

우리 병원은 3월 24일 여수 이안요양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안요양병원은 암 면역치료, 고주파 온열 암 치료, 고압산소치료를 비롯해 도수치료, 림프치료, 통증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또한, 족욕실, 황토방, 맨발 걷기 산책로 등의 자연 친화적 시설을 통해 환자들에게 편안한 치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병원은 환자 의뢰 및 회송, 진료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의학 정보의 교류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명옥 병원장은 “암 환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담긴 시설이 인상적이다.”라며 “지역의 암 환자분들이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유철 이안요양병원장은 “성가률로병원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숙련된 의료진, 그리고 이안요양병원의 암 중점 치료 서비스가 결합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구호 성금 3천만 원 전달



지난 3월 경북·경남권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우리 병원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구호 성금 모금을 진행하였다. 모금 활동에는 총 259명의 병원 직원이 참여해 총 16,946,300원이 모금되었으며, 여기에 성가률로자선회 기금 3,053,700원과 병원 지원금 1천만 원을 더해 총 3천만 원을 마련했다. 이 성금은 4월 8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에 전달되었다. 천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는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지의 사회복지시설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번 산불로 해당 지역 내 230여 가구가 전소되거나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옥 병원장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 성금이 피해 주민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사회복지팀 임소은 사회복지사

2025년 1분기 환자안전관리 우수부서 선정

우리 병원은 환자안전기준 준수 및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부서를 선정해 4월 2일 2층 성당에서 진행한 월례 행사에서 ‘환자안전관리 우수부서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을 받은 부서는 심혈관중환자실, 5B 병동, 건강증진센터 내시경검사실이다.



심혈관중환자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본에 충실하여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고 최우선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감문



건강증진센터 내시경검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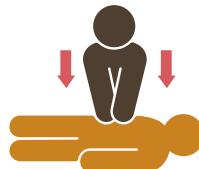
원내 각 부서에서 모든 직원들이 환자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 부족한 저희 부서를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환자안전을 위해 주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낙상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바쁜 와중에도 개선 활동을 직원들 모두가 정말 열심히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뜻깊은 상까지 주시니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어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건강증진센터 내시경검사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B 병동

1분기 환자안전관리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습관이 가져오는 큰 변화’ 습관이 만드는 차이를 직원들이 앞으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환자안전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환자안전 문화가 형성되도록 앞장서는 5B 병동이 되겠습니다.



전문의 초대석



심폐소생술에 관하여



약력
아주대학교 졸업
아주대학교대학원 석사
아주대학교병원 수련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임상강사
안양생명병원 응급의료센터장
현재 성가톨릭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전문분야
응급의학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두환 과장

4분,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죽음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대한민국에서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심장 기능의 영구적인 정지를 사망으로 정의한다.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등장인물의 죽음을 묘사할 때, 모니터에 나타나는 심장박동이 정지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망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곤 한다. 하지만 심장이 멎으면 정말 사람이 죽은 것일까.

죽음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심폐소생술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심장의 정지를 죽음의 시점으로 정의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다양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하였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시점은, 단순히 심장이 멎은 순간이라고 칼로 자르듯이 결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즉 "심장 기능의 영구적인 정지"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는 마치 사람이 굶어죽는 과정으로 비유한다면 이해하기가 쉽다. 사람이 굶으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하루를 굶었다고 바로 죽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살만 빠지겠지만, 금식을 계속 하면 점차 건강이 악화되다가 사망에 이른다.

인간의 장기가 죽어가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장기에 공급되는 혈액순환은, 매일 섭취하는 음식에 비유할 수 있다. 심장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힘차게 뛰면서 온 몸에 혈액을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모든 장기들은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 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굶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이 되어야 장기가 죽게 될까.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가장 먼저 죽어가기 시작하는 장기는 바로 뇌이다. 뇌에 혈액공급이 중단되는 순간, 단 몇 초만 지나도 사람은 곧바로 의식을 잃는다.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 그 원인중에 하나로 일시적인 뇌 혈류 감소가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의 대부분은 혈액 순환이 재개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이 회복된다. 하지만, 심장 기능이 정지되어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의식이 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뇌손상이 진행되는데, 4분 이내로 혈액 공급이 회복된다면 가역적 뇌손상, 즉 완전 회복이 가능한 뇌손상만 발생한다. 하지만 4분 이상 경과하면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즉 나중에 심장 기능이 회복되어 뇌에 다시 혈액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뇌에 장애가 발생한 채로 되돌아오게 되거나, 식물인간, 심지어는 뇌사에 다다르게 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많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수많은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이라는 말을 많이 접했을 것이다. 그 4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심장이 멎는다고 바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다. 심장이 멎으면 인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너무도 짧다. 4분 이내에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 그 사람 곁에 있는 누군가이다.

심장정지 생존사슬



(출처 :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다. 심정지를 유발할 질병은 고도로 전문화된 치료를 통해서만 치료될 수 있다. 여기서 "생존 사슬(Chain

of Survival)"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생존 사슬은 빠른 119 신고,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기 사용, 병원에서의 고급심폐소생술 및 전문 치료, 심정지 후 치료 및 회복관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심장이 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말한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이어달리기 경주와 같다. 일반인, 구급대원, 의사가 한 팀이 되어, 서로 바통을 넘겨주며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이다. 이 이어달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자 맡은 구간을 전력질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이어달리기의 맨 처음 주자가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일반인이다. 아무리 구급대원과 의사가 전력질주를 한다 하더라도, 맨 처음 주자인 일반인이 뛰지 않는다면, 심정지 환자는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일반인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는, 생존률에서 무려 3배 가량의 차이가 난다. 이 정도 차이라면, 심정지 환자가 살아났을 때,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한 일반인이 살려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단순히 가슴을 힘차게 누르는 행위가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 답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에 모두 담겨 있다. 심장의 기능은 피를 펌프질해서 온몸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그런데 심장이 기능을 멈췄기 때문에 뇌와 같은 필수장기들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서, 수 분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펌프질을 대신 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이다. 심장 바로 위 흉골을 누름으로써, 심장이 간접적으로 눌리게 된다. 심장이 눌리면서 심장 안에 있던 혈액이 펌프질 되고, 뇌와 같은 핵심 장기에 혈액이 공급된다. 심장 그 자체도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는다. 그럼으로써, 환자가 병원에 도달할 때 까지, 최종적인 치료를 받을 때 까지, 이 환자의 뇌와 심장이 버텨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언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가

일반인이 심장이 멎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심폐소생협회의 권고사항은, 환자가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으면 곧바로 119 신고 및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 이는 매우 단순화 된 지침이다. 과거에는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칠 때, 맥박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맥박 확인 절차는 삭제된 상태이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맥박 확인을 통해 심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인은 맥박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인 또한 맥박 확인을 위해 10초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 그만큼 정확한 심정지 판단은 어렵다는 뜻이며, 빠른 심폐소생술의 시작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해당하는 법 조항, 즉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구조활동을 한 사람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의식과 호흡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으며,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배워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kacpr9619>) 다만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환자가 침대 위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 곧바로 딱딱한 바닥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부드러운 침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의 가슴을 압박한다 하더라도, 침대의 쿠션이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심장이 압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팔의 힘으로 가슴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체중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야 하며, 팔은 체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체중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려면 팔꿈치가 구부러져서는 안된다. 또한 속도도 빨라야 하며, 분당 100~120회, 즉 1초에 2회 정도의 빠르기로 압박해야 한다.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많은 교육들이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다.



약학 교실

약제부에서 알려 드리는 재미있는 약 이야기

로라제팜 lorazepam

로라제팜은 벤조디아제핀계열에 속하는 약물로 뇌에서 gaba 수용체에 작용하여 gaba의 뇌에 대한 억제성 효과를 증가시켜 불안 및 긴장을 감소시킨다. 원내약품으로는 아티반 1mg 정과 아티반 주사가 있다. 약물의 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용량 또는 장기간 투여 시 갑자기 투약을 중단하면 불안, 불면, 환각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를 중단할 경우에는 천천히 주의해서 감량하여야 하는 약품이다. 로라제팜은 다른 벤조디아제핀 약물과 비교 시 혈중 농도가 50%로 감소되는 시간은 짧지만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이 높아 약효 지속시간은 짧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효능, 효과 : 로라제팜은 제형에 따라 효능, 효과가 다르다.

제형	효능 효과
정제 (1mg or 0.5mg)	신경증과 정신신체장애(자율신경실조증 †, 심장신경증)에서 발생하는 불안, 긴장, 우울 치료에 사용된다. 수술을 위한 마취 전에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주사제 (4mg/ml)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나 경구투여보다 신속한 효과를 내야 할 때 사용한다. 갑자기 발생하는 불안, 흥분, 조증의 진정, 마취 전이나 내시경검사, 기관지경검사, 동맥 촬영 시 불안 및 긴장 감소에 사용된다.

용법 :

- 정제 : 1일 1~4mg 용량을 2~3회로 나누어 투약
- 주사제
 - 마취 전 투약 : 일반적으로 체중 kg당 0.05 mg를 투여하는데 정맥 주사 시 수술하기 30~45분 전에 투여하고 근육 주사 시 수술하기 60~90분 전에 투여한다.
 - 급성 불안 : 체중 kg당 0.025~0.03 mg를 6시간마다 투여하며 근육주사보다는 정맥주사가 바람직하다.

경고 : 마약류와 로라제팜을 포함한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 병용 시 진정, 호흡억제, 혼수상태 및 사망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체 치료 방법

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의사에 의해 병용 투여가 처방될 수 있으나 병용 투여가 결정되면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투여되어야 하며, 호흡 억제 및 진정 증상을 면밀히 추적 관찰해야 한다.

금기 :

- 강박증 환자, 심각한 간부전이나 신장부전 환자, 쇼크, 혼수, 탈진상태 환자, 12세 이하의 소아,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정제에 한함)
- 근 이완 작용에 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중증의 근무력증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 알코올 또는 약물의존성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주의 사항 :

- 알코올, 수면제, 진통제, 항정신병약, 항우울약 또는 리튬 등의 급성 중독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한다.
- 졸음이 오거나 주의력, 집중력, 반사 운동능력 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로라제팜 투여 중에는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조작은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일반적인 항불안 효과를 목적으로 투여할 때는 가능한 단기간(2~4주) 투여한다. 총투여 기간은 4~12주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기간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의 증상을 재평가해야 한다. 투여를 중지할 때는 점진적으로 용량을 감량하여야 한다.

부작용 :

- 대량투여에 의해 정신적, 육체적 약물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대량투여 또는 장기 복용 중에 투여량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거나 투여를 중단할 경우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중지할 경우 천천히 용량을 감량한다.
-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가장 흔한 부작용인 진정이 있고 그 외의 부작용으로는 어지러움, 졸음, 불안정, 두통, 저혈압, 쇠약감 등이 보고되고 있다.

- 출처: 약학정보원 (<https://www.health.kr>) - 약제팀 박윤진 약사

일분교리

왜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가

우리는 먼저 한 가지 뚜렷한 사실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보통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거나 또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었는지를 알고자 진정 애쓰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가 청하는 기도의 결과를 보아야겠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청원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은, 자유로워야만 하느님의 품위 있는 자녀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확실하게 알려면 자유의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가톨릭 교리서 2735~2736]



| 편지글 |

신경외과 김성현 과장님 저희 어머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59년생으로 작년에 만 65세가 되셨습니다.

예전 같다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노인이지만, 요즘은 한창의 나이로, 실제로 수년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벌써 몇 년째 고흥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며 고추 농사지으시는 아버지와 함께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약 2주 전 생각지도 못했던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현재까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타지에 살고 있는 저와 즐겁게 통화하셨고,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막 마치신 그 시점에 두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시며 몸을 가누지 못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아버지는 산등성이에 있는 집까지 119를 불렀다가는 집을 찾다 시간을 하비 하겠다 싶어 마을 이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셨고, 이장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을 차에 태워 지체 없이 성가를 병원으로 달려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쓰러져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퇴근하셨던 김성현 과장님께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수술을 집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이 크게 다쳤다고 할 때 하는 표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직접 겪어보니 가슴 속이 와르르 무너지며 눈앞이 새까맣게 변하는 것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처자식을 데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겨우 수술실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의자에 앉아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시는 아버지와 말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셨던 이장님만이 고요하였고, 저와 저의 아내 그리고 12살 딸아이도 어머니의 성공적인 수술을 기원하며 조조하게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가 다 되어서야 김성현 과장님께서 수술실에서 매우 지친 얼굴로 나오시며, 어머니의 상태와 수술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최송하게도 모든 내용이다 기억이 나진 않고,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셨을 때부터 의식 및 동공 반응이 없었고, 뇌출혈이 급성이며 출혈량이 매우 많아 상태를 장담할 수 없으니 당일 9시 회진 이후 다시 한번 연락을 줄 테니 우선 집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하셨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들어가시고 중환자실 앞에서 아버지와 부여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아직 어머니와 이별할 준비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데 갑작스레 찾아온 불행은 고요한 노년을 맞이하려 하셨던 저희 부모님과, 이제서야 겨우 사회에서 한 사람 뜻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며 귀한 손녀딸 조부모님께 잘 키워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던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현장에서 저희 가족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그저 겨우 이장님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입원 절차만 마무리 한 채로 집으로 돌아와 과장님의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에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져있을 무렵 선생님께서 회진을 하셨고 다행히 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강한 의지로 깨어나셨구나!’ 하며 조금은 안도하고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어머니가 다시 의식을 잃어 2차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부랴부랴 아버지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2차 수술을 들어간 수술실 앞에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그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철없던 시절에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왜 미안하다고 맙다 그 말 한마디를 쉽게 하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또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수술실에서 나오신 김성현 과장님은 이미 마음이 많이 부러져 벼려 “어머니가 잘 못 될까요?”라고 질문하는 저에게 “작은 경과를 두고 봐야 하지만 좋은 점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릴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너무 염려 말고 우선 지켜보자”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의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희망이고 힘이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저희 어머니는 12일간의 중환자실 생활을 마치고 일반 병실로 가십니다. 지난 12일간 겪었던 마음고생과는 별개로, 진짜 힘든 것은 뇌출혈 환자의 회복과 재활 과정에서 오는 심적, 경제적 고통이란 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저희 가족에게 주신 김성현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타지에 사는 저보다 아버지께서 더 많은 고생을 하시겠지요.

그리고 그저 눈만 감았다 떴을 뿐인데 반신불수가 된 저희 어머니의 마음도 지금은 말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죽음의 문턱에서 어머니를 데리고 돌아와 주신 김성현 과장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치료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어머니께 항상 힘을 드리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롤로 퀴즈

■ 아래의 퀴즈를 풀어주세요. 정답은 이번호 병원보 속에 있습니다.

정답자 5명을 추첨하여 뚜레쥬르 교환권(1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직원식당에 마련된 응모함에 매월 말일까지 넣어주세요.

1. 의료봉사단은 3월 15일 여산마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봉사에서 총 몇 명의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
2. 생존 ○○이란 빠른 119 신고,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기 사용, 병원에서의 고급심폐소생술 및 전문 치료, 심정지 후 치료 및 회복관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심장이 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말한다.
3. 우리 병원은 환자안전기준 준수 및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부서를 선정해 4월 2일 환자○○○○ 우수부서 표창을 수여했다.
4. 이번 달 병원보에 실리지 않은 글은 무엇인가?
 - ① 심폐소생술에 관하여
 - ② 예비자 입교식 진행
 - ③ 이안요양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
 - ④ 빈 무덤, 그곳에서 부활을 만나리라.

4월호 가롤로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수신 : 홍보팀	소속 :	직종 :
성명 :	직통번호 :	
가장 좋았던 기사 및 코너는?		
독자의 목소리(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식단

영양표시를 보면 건강이 보입니다.



2. 영양표시, 왜 확인해야 할까요?

-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

제품에 표시된 열량을 확인해 보세요.



탄수화물 1g은 4kcal를 냅니다



단백질 1g은 4kcal를 냅니다



지방 1g은 9kcal를 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고혈압이 있으신데...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나트륨, 지방 등의 함량을 살펴보세요.



내 동생은 군것질을 너무 많이해

열량, 나트륨, 당류 등의 함량을 확인해보세요.

1. 영양표시, 어떻게 활용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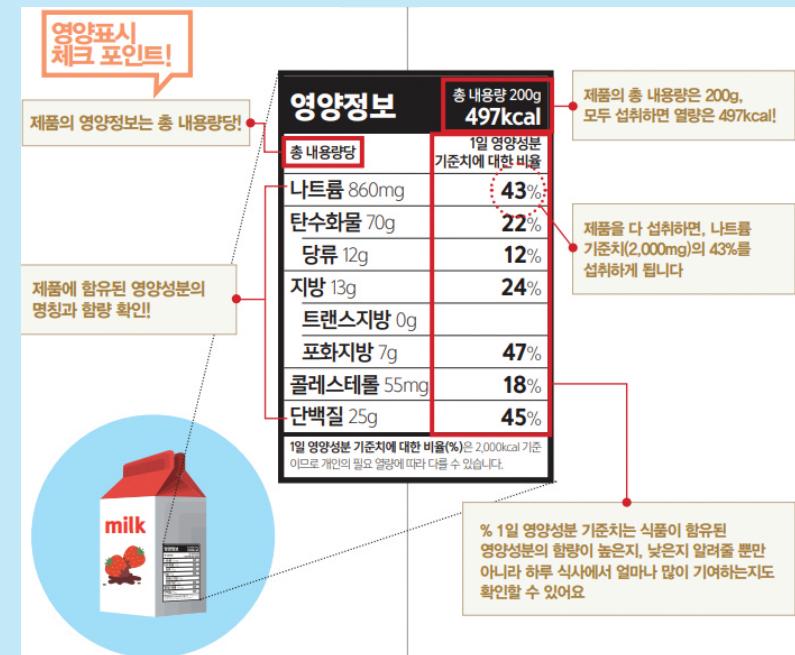
- 제품 구매 시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하여 보다 더 건강한 제품을 선택하기

▶ 총 내용량당 영양표시 비교

당류의 경우, 더 낮은 함량의 제품을 선택!



3. 영양표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할까요?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식품안전정보포털 (www.foodsafetykorea.go.kr)
- 영양팀 이상은 영양사

319호

3 월

가족로 퀴즈정답 & 당첨자(5명)

마산애 | 8A 병동
김진아 | 영양팀
김주남 | 서한실업

* 이번 달 퀴즈를 추첨한 부서는 소아청소년과입니다.

- 속쓰림과 산 역류 같은 전형적인 증상을 비롯해 기침, 쉰 목소리, 인후염과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 이 질환은 무엇인가? 역류성 식도 질환
- 최근 건강증진센터에서 도입한 검사로, 탈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요인을 검사하고 개인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는 무엇인가? 탈모 리스크 스크린
-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한 신입 간호사 입문 교육에서 김영진 의무원장이 강의한 특강 주제는 무엇인가? 의료의 미래
- 이번 달 병원보에 실리지 않은 글은 무엇인가?
 - 봄맞이 소망의 글(가훈) 써주기 행사 진행
 - 탐스로신(tamsulosin)
 - 2024년도 의무기록완결도 우수직원 포상
 - 부활 맞이 직원 피정 진행

원고 모집 안내

직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성가를로 병원 NEWS의 밑바탕이 됩니다.

- ▶ 기억에 남는 환자 또는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 특별한 나의 취미
- ▶ 소문내고 싶은 맛집
- ▶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 ▶ 그 외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 마감 : 매월 말일
- 제출 방법 : 가족로포스트(홍보팀 조수빈)



복음 묵상

| 주님 부활 대축일 |



빈 무덤, 그곳에서 부활을 만나리라.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여타 다른 종교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1코린 15,17)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무덤에 찾아간 마리아 막달레나는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부활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리고 이 일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해주셨지만 그 깊은 신비와 감동, 믿음의 기쁨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

음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은 현세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 성령의 감도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얻게 되는 하느님 나라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곧 새 생명의 시작이요, 썩어 없어질 육신이 불사의 옷으로 갈아입음을 뜻합니다. 또한 그것은 참사랑과 참 기쁨과 참 평화를 가져다주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미 하느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눈물과 한숨 속에서 밤을 새우며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좀 더 그분을 잘 모실 것을...’ 하는 후회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으로 그분의 시신에 바를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무덤은 비어 있고 수의는 흘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구나!”(요한 20,2)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마리아야!”(요한 20,16)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마리아의 영혼을 깨웠고 그녀는 “라뿌니!”하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마태 28,10)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써 이 세상과 인류는 의미를 되찾았고, 믿음과 희망을 튼튼히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혀된 것이요. 희망도 공허한 외침이며, 사랑도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빈 무덤은 예수님의 수난에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징표입니다. 빈 무덤은 믿음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도 빈 무덤을 묵상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도록 청합시다.

- 유촌동성당 주락권(세례자요한) 신부

성가롤로자선회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벗인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우리 병원으로 보내시는 듯 합니다. 우리에게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하십니다.

성가롤로자선회는 성가롤로병원 임직원과 뜻있는 후원자들의 자발적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후원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일시후원 계좌 : 광주은행 700-107-478105

(재)천주교끼리따스수녀회(자선)

정기후원 문의 : 성가롤로병원 사회복지팀 061)907-7740~2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성가롤로병원

발전기금 후원안내

성가롤로병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여러분의 귀중한 정성으로 치유자이신 예수성심의 사랑을 실천하며 책임진료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의료로 발전을 위해 정진하며 불우환자의 지원과 지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발전기금조성위원회와 발전기금관리규정에 의해 엄격한 절차에 따라 기금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기부자님들의 고귀한 뜻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발전기금 후원 계좌 | 예금주 : (재)천주교끼리따스수녀회

광주은행 : 700-107-500533

광주은행 : 1127-020-225740

농협 : 317-0005-2620-81

■ 후원문의 | 재무경리팀 ☎ 061)720-6420~1

■ 후원해 주시는 분에게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법인 포함)

병원 발전기금 기부자 (2025. 3. 1 ~ 3. 31)

강성일, 강은진, 고호문, 김상순, 김승만, 김영진, 김영후, 김행언, 김현중, 나재형, 박소윤, 서빛나, 우초윤, 이기재, 추태선, 대한약품공업, 성우메디칼, 지성메디텍, 편안한김약국, 효성의료기, 익명 3명, CMS약정자 17명

* 이 외 매월 발전기금을 약정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성가롤로병원 외래진료 안내

대표전화 061)720-2000, 종합안내 061)720-2500, 방사선 암 치료 061)720-6900, 건강증진센터 061)907-7200~7203

[진료과목 가나다 순서]

진료과	과장명	전문 진료 분야	진료일 오전 / 오후	진료과	과장명	전문 진료 분야	진료일 오전 / 오후		
건 강 증 진 센 터	가정의학과 720-2250	최현정 황신혜	일반내과질환, 만성피로, 갱년기질환, 건강증진, 가족주치의 치료 항노화 일반내과질환, 만성피로, 건강증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성인예방접종	월수금/화목 화목/월수	신경과 720-2170, 2179	조은미 신대수 박수신 김진석 강종수	두통, 뇌졸중, 치매, 어지럼증, 파킨슨병, 일반신경과질환	월화수금/월화목 월화목금/월수목 월화수목/월수금 월목금/월화수금 월수/월화목금	
	박병록	선택정밀건강진단 : 소화기, 심혈관, 폐질환, 뇌, 갑상선, PET/CT, 암정밀, 여성·남성 정밀검진 특성화 MDCT : 특성화기본, 폐·심장, 뇌·경동맥 추가선택검사 : 초음파, 골밀도, MRI, CT, PET/CT 건강진단 초음파	월~금	임병찬 김성현 양인철 석 훈		뇌혈관질환, 일반신경외과질환 뇌혈관질환, 일반신경외과질환 뇌혈관질환, 일반신경외과질환 뇌혈관질환, 일반신경외과질환, 통증	월목금/월금 화금/화금 수금/수목금 월목금/목금		
	한상돈 정종승	종합건강진단 전반	월~금	심장혈관흉부외과 720-2260 *금 외래문의	김성룡 오정우 오상기 송준영	폐, 식도암질환, 종격동질환, 기흉, 최소침습적 폐암수술 밀초동맥질환, 정맥질환(하지정맥류), 동정맥류조성수술, 흉부외상, 손디하증 성인심장, 관상동맥오히술, 판막수술, 심장이식, 심장증양, 심낭질환 심장 및 흉부외상, 중환자의학, 체외순환보조술(ECMO)	목/월목 수금/수화 월		
	최현정 황신혜	종합건강진단 전반	월~금		전동권 주정현 정태석	근골격영상의학, 유방영상의학, 심장혈관영상의학 신경두경부영상의학	월~금 월~금 월~금		
	박진경	종합건강진단 전반	월~금		김영민 이상민 이승우	복부영상의학 흉부영상의학, 유방영상의학 인터벤션영상의학 신경두경부영상의학	월~금 월~금 월~금		
	고승규 노기서	건강진단 위·대장 내시경 건강진단 위·대장 내시경, 종합검진 판정 및 결과 상담 건강진단 초음파·판독	월~금 월~금	영상의학과 720-6118	김영진 김태균 성진식 송영주 김광용 송 육	대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위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외과질환 간담췌, 위, 내시경갑상선수술, 복강경수술, 일반외과질환 유방암, 갑상선암, 양성질환 위암, 복강경수술 대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외과질환	화 수금 월목 화목 화금 월수		
	국가검진 907-7100	김현실	일반건강진단 전반(건강보험공단검진)	월~금/월화수금	김영진 김칠성 임광필 오민석 노재훈 이두환 김지주 박현재 강민욱 이정주 최인철 성화용 김원 노종갑 이상훈 박민우	응급의학과 응급의료센터 720-2070	응급의학 (24시간 진료) 전일		
	내 과	감염내과 720-6152	정영곤	감염질환, 불명열, 여행의학, 성인예방접종	월~금(오전만)	외과 720-2270	김재혁 김칠성 임광필 오민석 노재훈 이두환 김지주 박현재 강민욱 이정주 최인철 성화용 김원 노종갑 이상훈 박민우	고압산소치료 (가스증독, 감압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전일
		내분비대사 내과 720-6193	김정민	당뇨병, 갑상선, 뇌하수체, 부신질환	월~금/월화금		고압산소치료 (가스증독, 감압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전일	
		소화기 내과 720-2110	김호동 김도현 황유정 진석재 명형준 김승희	간질환, 위장질환, 내시경 간질환, 위장질환, 내시경, 간담도질환 간질환, 위장관질환, 내시경, 간담도질환, 담도내시경 소화기내과질환 소화기내과질환 소화기내과질환	화목 화목 월금 월수 수금 월목	이비인후과 720-2210	최지영 정신철	두경부증양, 음성질환, 비부비동염, 중이염, 어지럼증, 소아이비인후과, 난청 비염, 축농증, 부비동 내시경 수술, 음성질환, 양성증양, 어지럼증, 소아이비인후과, 난청	월화수금/화수금 월화목금/월목금
		순환기 내과 720-6200	조장현 김수현 이민구	관상동맥질환(심장혈관 중재시술), 인공 심장박동기, 심근심장 대동맥질환, 밀초혈관질환, 삼지판막질환, 삼정출기세포치료법, 심부전증, 부정맥, 고혈압, 실신, 이상지질혈증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증, 부정맥,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심장혈관 중재시술), 밀초혈관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증, 부정맥, 고혈압, 실신	월화/화목 월화수/수 월목금/목		재활의학과 907-7400	김재홍 최준현	근골격계, 재활치료, 언어재활, 연하장애재활 뇌신경재활, 척수손상재활, 근골격계통증, 수술 후 재활, 심장재활, 흐흡재활
		신장내과 720-6167	김병기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만성신부전, 투석치료, 전해질 이상	수목/화	정신건강의학과 720-2290	강 일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치매, 일반정신과질환	월~금/월~목
		혈액증양내과 720-2150	김민지	혈액증양질환	월~금/월수목		정우철 김세진 함동훈	고관절, 슬관절, 스포츠 손상, 관절염, 인공관절 치환술, 관절경수술 관관절, 주관절, 스포츠손상, 관절경수술, 인공관절 치환술 요추 및 경추 디스크, 척추관 합착증, 척추 외상, 감염, 종양, 척추 측만증, 골다공증, 척추 압박골절, 강직성척추염, 무릎발목관절 질환, 골관절 외상 전문	수금/월수 화목/화금 화목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720-2189	이기동 김건우 유상훈	호흡기질환, 폐결핵, 폐암, 폐렴, 간질성폐질환, 중환자, 천식 호흡기질환, 천식, 비염, 두드러기, 약물·음식물 알레르기, 면역치료, 만성기침, 아토피피부염 결핵, 폐렴, 기관지내시경, 천식 및 만성 폐색성 폐질환, 독감, 만성기침클리닉, 간질성 폐질환, 호흡부전 및 중환자 집중치료	월화금 월수목금/월수금 월수목금	정형외과 720-2130	최병열 임경훈	척추질환(요추 및 경추 디스크, 척추관 합착증), 척추 외상, 감염, 종양, 척추 측만증, 골다공증, 척추 압박 골절 족부 족관절 질환, 골절 및 탈구, 관절경 수술, 스포츠 손상	월금 월수/수목
		마취통증 의학과 통증클리닉 720-6316	김명원 김대희 김밝네 서동학	통증치료, 마취 통증치료, 마취 통증치료, 마취 통증치료, 마취	전일		진단검사의학과 720-6243	김영휴	혈액학, 수혈의학, 임상화학, 면역혈청, 임상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바이러스학
	방 사 선 증 양 학 과	방사선종양학과 720-6900	최치환 조익준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	월수목/월목 화수금/금	치과 907-7230	마주리	일반치과 진료, 치주치료, 임플란트, 보철치료	월~금/월수목
		병리과 720-6220	이영직 김영희	조직병리검사, 세포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셀프립검사 조직병리검사, 세포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셀프립검사	월~금 월~금		신동식	일반 피부과 질환	월~금
		비뇨의학과 720-2280	김건평 정세현	요로결석, 소아비뇨, 배뇨장애, 전립선질환, 요로감염 요로결석, 비뇨기계증양, 배뇨장애, 전립선질환, 요로감염	월~금/월화목 월수금	핵의학과 720-2191	허영준	순환기핵의학, 뇌신경핵의학, 소아핵의학, 종양핵의학, 비뇨생식핵의학, 내분비핵의학, 근골격계핵의학	월~금
		산부인과 720-2230, 2239	나재형 강창구 김호준 최효성	고위험산모, 복강경수술, 여성암조기진단, 폐경기관리, 일반부인종양 진단 및 치료	화목금 월수금 월수금 화목금		김영진 황신혜	호스피스 원화의료 호스피스 원화의료	화 화목/월수금
		소아청소년과 720-2240	이천오 박병배	소아 내분비학 (성장장애, 성조숙증, 소아당뇨, 소아갑상선질환), 소아 신경학(뇌전증, 두통, 어지럼증, 뇌파검사, 뇌MRI), 소아 알러지 (아토피성피부염, 비염, 천식, 두드러기), 영유아 건강검진 소아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위장관질환, 건강검진 및 영양상담	월~금 월~금	호스피스원화의료 907-7530			